

ECB, 24.7월 통화정책회의 결정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

1

금융시장 반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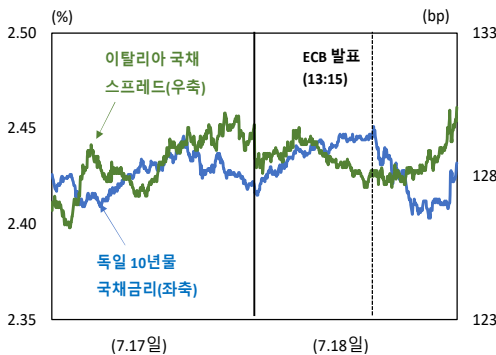
24.7월 ECB 통화정책회의 주요 내용

- ◆ (정책결정) ① 정책금리 동결(수신금리 3.75%) ② 최근 지표들은 직전의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평가를 광범위하게 뒷받침 ③ 특정 금리경로를 사전에 정하지 않을 것
- ◆ (기자간담회) ① 금리동결 결정은 만장일치 ② 성장전망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음 ③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지만 예상에 부합하며 향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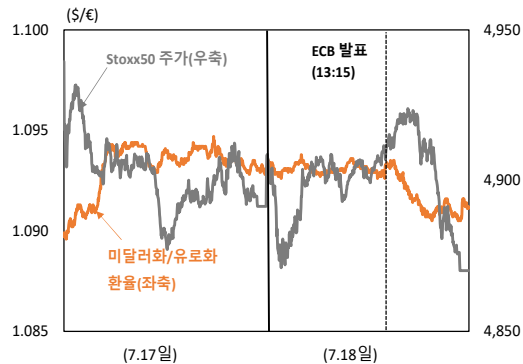
□ 독일 국채금리(10년물)는 장초반 상승하다 ECB 정책결정 이후 Lagarde 총재가 중기 물가 전망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약보합(2.43%, 전일대비 +1bp)으로 마감하였고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는 소폭 확대(131bp, +1bp)

○ 유로화 환율(US/€)은 예상보다 소폭 완화적인 ECB 총재의 기자회견 등으로 하락(1.0912, -0.27%)하였으며, 주가(Stoxx 50)는 유럽 기업실적 발표에 따라 등락을 보이다 하락 마감(4,870, -0.44%, 런던 시각 17시 기준)

독일 국채금리(10년물) 및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¹⁾



유로화 환율 및 주가(Stoxx50)



주 : 1)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- 독일 국채 10년물
자료 : 블룸버그

작성자 : 임준혁 과장, 반진희 과장

조언자 : 조재현 차장

- 시장참가자들은 정책결정문에서 나타난 ECB의 물가상황 평가와 정책기조가 지난 6월 회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, 임금 관련 Lagarde 총재의 기자회견 언급 등은 **소폭 dovish**한 것으로 평가
 - ECB는 당초 시장 예상대로 **데이터 의존적**인 입장과 **정책금리 경로**의 **포워드 가이드스 未제시**를 고수하였으며, 이외에 정책방향을 가늠할만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제시하지 않았음(Nomura, Credit Agricole)
 - 다만 최근 높은 수준의 **임금상승**에도 불구하고 **내년부터 둔화**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Lagarde 총재는 다소 자신감*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(Bloomberg, Natwest)
 - * It could of course be wrong and the ECB would adjust policy accordingly, *I refuse to entertain the hypothesis where "all" the indicators and assessments of the ECB are wrong.*(24.7월 ECB 정책회의 기자회견 Q&A 중)
 - 또한 일부에서는 임금상승 충격이 **기업이익 감소**로 완충되고 있다는 정책결정문이 향후 **임금-물가간 2차효과가 줄어들** 것이라는 완화적인 기대를 내재하고 있다고 분석(Morgan Stanley)
 - **경제성장** 측면에서 지정학적 위험 등 향후 **하방리스크**가 **우세**하다고 언급한 점도 완화적으로 평가(Bloomberg, Natwest)
- 다수 투자은행들은 차기 **9월 회의**를 포함한 **금년중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**를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으나, 향후 대내외 여건에 따라 인하 속도가 늦춰질 리스크를 배제하지 않고 있음
 - * 금일 선도금리시장은 ECB의 9월 금리인하(25bp 기준) 가능성을 79% 반영하고 있으며 금년중 1.8회(45bp)의 추가 금리인하를 반영
 - 9월 금리인하가 내재된 직전(24.6월) ECB **물가전망**이 금번 회의에서도 **유효**하다는 정책결정문 내용은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크게 시사(J.P.Morgan)
 - 다만 일부에서는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**美 Fed**가 금년중 **기준금리**를 **동결**할 경우 ECB의 추가 금리인하 시점도 9월 너머로 지연될 수 있음을 우려(Jefferies)